

권태선, 서명숙 평리중앙 축하
2005-5-19 7:00 PM

No.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권태선 중앙님, 서명숙 중앙님 한겨레신문리 오마이뉴스리
평리중앙님 귀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연호계의 Machemism을 모티브로 한 이니셜
두분 중앙님을 만나게서만 비로소 실용이기 때문에
축하의 뜻을 제대로 밝힐수있어 잊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리저리 생각은
오랜동안 우리리 여가계의 변천의 발자취를
노출하리라 지켜보고 어느 실용으로되

안타깝게도
행안리리
공회당앞의
다양 배를

화문의 ^{발행량} 관계, ^{발행량} 법관계, ^{발행량} 고지광수리 ^{유명} 주계, ^{유명} 산악리 등의
판도 (이리) 이니

두분중앙님

Date . . .

어느분에게서든지 이렇게 가부장제로 다뤄졌다고 여겨지는
 인물에게서도 또래나서 큰 변화가 있고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았다는 뜻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도 인물에게 불합치한 25~29년이나 씌워서
 불합치가 아니라 또래주장이 되어서 결국은 오래된 것일 것입니다.

일단 75세까지 살았을 노력을 하셨습니까?
 장수 장수를 하셨습니까?

더구나 또래주장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래가 가부장적 주위에 의해서 인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부장제에 있어서는 인정은 수컷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분의 동행과 인품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원래의 직장인 제사는 1978년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 알게 되
88년 한겨레에 광고를 하게 되고
국제부국장 자리 후퇴로 등을 거치며
2001년 중앙일보에서 최후의 여성 사회부장을 맡으며 끝이 나

최종에는 (사) 한국언론인 연합회를 우리와 연로한 회원에
공로로써 후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제1회 한국 언론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사임한 직장인 제사
저는 <비광> 유선 <한국인> 기사를 통해 알게 되
1989년 시사저널 창간 member 제사
제사 team장, 제사 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2001~2022년 51년간의 평균을 0%로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제 13대 국회의 의결을 반영
시국상임의 심의로 국회평론에
능동적히 참여를 기약함.

뛰어난 작품으로 각의 정복자인 양대 이종수의
대역극장인들이 최선을 다해 연기한 작품이다.

영문제이대위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는
평생 우리 모두 또 한 번 보낼 줄을 잘 배워
잘서 줘요.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감화를 잊을것으로 짐작함.

그이후로 그들은 여생계개 중시할것,
여생계개 배설물등을 도저히 대수 경시해 못
만들게에 배설물 기태할수 있는데의 일것임.

비록 여생계개를 기태한것이 아니
하지만 여생의 시점으로 본래는이
일을 우리사회에 해방의 정국이 큰일것이기 대수임.

두분 중장임을 위해 너무 큰 기태를 갖인다고
부담을 느껴는 미사일로.

우리는 지금까지로 오래 기다리며
있어 왔음.

이후에 여생계개 기태고 지금까지 리한 그대로
리함 짐작함.

사람들이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세기가 노력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회변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 한계까지로 소비의욕에
 힘쓰는데에 두 여성 대표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변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여성들이 주인공인 좋은 영향을
 갖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차이를 극복하여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오늘 'We Are the Sisters, Good Sisters' 라는
이름으로 개회된
두문평재국립 휴일을 축하하는 지리가

한동안의 기쁨을 나누는 지리를 끝났듯이 이제
오늘 드디어 Sisterhood 를
우리나라를 본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소개하는
지리를 시작하리라 한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리라.
변화한 세상을 본받아주는 우리 풍경을.

제2 지리 40년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문평이
10년 동안의 것을 감당하리라
또 우리의 두문평이 90년, 100년을 전하고 하리라.

100세를 목표로 하여 1, 2로

No. 8

22세에 ^V인생을 이모작 해낸 후 100세에 관심하기 시작.

22세 3월

전국장원 150세, 시중장원의 48세

이런데 100세 100세 인생을 시작하는 22세 3월

두분의 생애 100세 100세

우리에게 100세 100세 100세 100세

내내 건강하고 100세 100세 100세 100세

우리 모두에게 100세 100세 100세 100세

인생 100세 100세 100세 100세

Date

MOORE CO.

초 청 장

INVITATION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서명숙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격려와 연대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언론계의 여성 편집국장 시대를 활짝 연 두 분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여 뜨거운 자매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권태선, 서명숙 편집국장 취임 축하식

- We Are the Sisters, Good Sisters! -

일 시: 2005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청인: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옥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연숙((주)파라다이스 미디어아트 부사장), 이유명호(한 의사)

주 최: 사단법인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후 원: 한국여성재단

* 참석여부를 5월 17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02-717-9247

** 참석비는 2만원입니다.

We Are the Sisters, Good Sisters

- 권태선 · 서명숙 편집국장 취임기념식 -

식 순

- 인사말

- 축 사

- 소개의 시간 & 답사

- 우리가 사랑하는 그녀들

- 축하 공연

- 케익 커팅

- 건배의 제의

- 친교의 시간